

# 기아차 파업, 협력업체 등 골 훤다

330여 협력사 150억 파업 손실

급여·수당 줄어 근로자들도 불만

기아차 광주공장의 파업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협력업체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11일 기아차와 협력업체에 따르면 광주공장 노조가 지난달 27일부터 11일까지 8일간 부분파업을 실시해 광주·전남지역에 위치한 330여개 협력업체들의 파업손실액이 1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파업 손실까지 합할 경우 손실액은 180억 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남산단 A업체 대표는 “광주공장의 파업이 한달 이상 이어지면 우리는 1년 순이익의 50% 이상을 깎아먹게 된다”며 “협력업체들에게는 올해로 17년째 예측불가능한 재앙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라고 파업에 대한 불만을 털어놨다.

하남산단 B업체 관계자는 “광주공장의 생산라인이 멈추면 협력업체도 가동을 중지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 월급을 안 줄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매출없이 비용만

늘어나고 있다”고 역설해했다.

소총산단내 C사 대표는 “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모기업도 크지만, 모기업은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협력업체에 원가 절감 등을 요구한다”며 “이같은 손실은 1차에서 2차로, 다시 2차에서 3차로 도미노처럼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협력업체들이 파업으로 인해 이처럼 큰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광주공장에 대해 항의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다.

E협력업체 근로자 이모(47)씨는 “우리는 이미 완성차 노조원들과 우리를 같은 노동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보다 2~3배의 월급을 받으면서도, 매년 파업을 강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종기자 jtlee@kwangju.co.kr

지난달 신규취업 30만명 넘었다

20~30대층은 되레 감소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보다 31만8천명 증가하면서 지난해 8월 이후 10개월 만에 정부의 일자리 창출 월보다 31만8천명 증가했다.

하지만 40대 이상의 신규취업자가 47만2천명이 늘어난 반면 20~30대 신규 고용은 뒤에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고용시장 개선속도가 더딘 것으로

로 나타났다.

11월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전국의 취업자는 2천381만6천명으로, 전년동월보다 31만8천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정부의 목표인 30만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8월(31만8천명 증가) 이후 10개월 만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온·오프라인

- 김종우



## 언론자유·부패관리 등

### 한국, 5개분야 뒷걸음질

世銀 ‘국정관리 지수’ 발표

한국은 지난해 정치안정과 부패관리, 규제의 질, 언론자유, 법치 등 주요 ‘국정관리(Governance)’ 지수들이 일제히 나빠졌다고 세계은행 보고서가 10일 분석했다.

세계은행이 전세계 212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매년 발표하는 ‘국정관리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06년도에 ‘부패관리’ 부문에서 0.31점을 기록, 2005년의 0.47점보다 크게 낮아지는 등 평가대상 6개 부문 중 5개 분야에서 뒷걸음질을 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하 -2.5점에서 최상 +2.5점 까지 점수를 부여하는 부문별 평가에서 한국은 2005년 ‘부패관리’에 대해 0.47점으로 전세계 상위 68.9% 수준에 이르는 평가를 받았으나 2006년엔 0.31로 64.6%를 유지하는데 그쳤다. ‘정치안정’ 부문 지수도 2006년엔 0.42 점(60.1%)을 받아 2005년의 0.55점(63.9%)보다 나빠졌다.

‘언론자유’ 지수 역시 0.71점



(70.7%)으로 작년의 0.78(72.6%)보다 떨어졌으며, ‘규제의 질’은 0.70점(70.7%)으로 전년의 0.77점(71.7%), ‘법치’는 0.72 점(72.9%)으로 2005년의 0.78점(74.8%)보다 각각 뒷걸음질쳤다.

/연합뉴스



11일 울산시 남구 고사동 SK에너지 들판 5부두에서 북한으로 중유를싣고 갈 제9 환창호가 중유를 선적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화전당 종합계획안 서둘러야”

이병훈 추진단장 “별도 장소에 랜드마크 조형물 검토중”

이병훈 문화관광부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추진단장은 11일 국회 일정과 예산 확보 과정 등을 감안할 때 문화 중심도시 종합계획안은 8월 말에서 늦어도 9월 초 안에 확정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장은 또 랜드마크 논란이 있고 있는 문화전당과 관련, 전당 자체의 설계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문광부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한편, 전당 밖 별도 공간에 상징 조형물을 세워 기능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단장은 이날 낮 광주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문화도시 종합계획안 확정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 ‘특별회계’ 등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종합계획 확정이 9월을 넘어서면 의미가 없다”면서 “광주시와 조율

을 통해 쟁점을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 여의치 않으면 부처 협의를 통해 보완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달아서라도 8월 말이나 9월 초까지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또 “문화전당 설계자의 정신을 존중한다”고 전제한 뒤 “다면 시민의 여망을 감안해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 위치와 형태 등에 대한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는 “별도의 랜드마크 관련 시설을 세우려면 부지와 예산이 있어야 하는 만큼 총사업비 증액이 전제돼야 한다”며 “행복도시가 기본계획에 포함되자 않은 상징 조형물을 별도 용역을 통해 확정한 사례에서 보듯 문화전당도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종합계획을 확정한 뒤 추후 용역을 통해 랜드마크를 보완하는 것이 타당하

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또 “랜드마크는 건축물이나 구조물, 조형물을 통해 기능을 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상징조형물로 가는 방향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달 말 설계자인 우구승씨가 귀국하면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광주시가 요구하고 있는 100만평 규모의 문화복합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문화산업단지에 장밋빛 기대를 걸어서는 안된다”며 “문화의 생산·소비와 관련된 활발한 활동과 프로그램 차별화 등을 통해 유동 인구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지 규모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과거사위 ‘KAL 858기 사건’도 조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1987년 북측이 88서울올림픽을 방해하려고 바그다드를 서울행 비행기를 폭파시켰다는 ‘KAL 858기 사건’에 대해 조사를 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위원회는 또 ‘8·15 저격사건’과 ‘오종상 급급조치 위반사건’을 직권조사하고 ‘남북여부 서장역 간첩조작’의

혹시건’도 조사키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KAL 858기 사건”的 폭파 김현희와 당시 안기부 핵심 간부들을 조사하지 않아 많은 의혹이 제기됐다”며 “작년 11월 차모씨 등 실종자 유족 73명이 진실규명을 요청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안기부의 사전인지와 개입여부 ▲KAL 858기의 폭파·주

락·실종 여부 ▲‘무지개 공작’의 실체 ▲실종자 유족이 공안기관의 감시를 받는 등 인권침해 피해 여부 ▲김현희의 북한 공작원 여부와 평양 출발 이후 행적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진실화해위는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행사장에서 세월교포 2세 문세광씨가 육영수 여지를 자격해 사망한 사건인 ‘8·15 저격사건’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세계카드 결재·대납

### ★잔여 한도 대출 ★카드 연체 대납

통합업체 동구114호 ☎ 228-3688

## 4층 원룸 매매

▶조선대 정문 인접4거리(대학문 인근) [출입] 대지 107평 2층부 206평(실내231평)  
▶층수: 상가·관련실 →2층+3층: 원룸142평  
▶4층: 주오·내시대, 원룸1개  
▶매각: 95.67·7000만원(2층2개·보금400만원포함)  
▶10억원 길값 원금3·5억원원금  
▶월세: 월100만원[월600만원수입기준] 노후보증금  
▶TEL: 062-234-7497 [주인직접]

## 조립식 건축 전문

• 모든 조립식 건물 판매가공사  
• 공장, 창고, 신축, 전원주택, 농가  
• 창고구조, 비단, 콘크리트 거푸집구조를 활용  
• 격자형, 도면제작 시와 출장  
• 저렴한 배송, 가격 같은 비용으로 직접 지원드립니다.  
☎ 062-956-3229, 010-6622-0460  
에이스판넬

## 제권 판결

사 건 2007카공42

신청인 김선원

전남 진도군 고성면 노화리 1116-1

이해득록 기재 종사의 소지인은 광시화고기일  
인 2007. 10. 22. 15:00까지 이 법원에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기  
비란니다. 만일 이를 개설하여 권리리를 삼상  
하여 종사의 무효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종 류: 자기앞수표  
· 번 호: 90574581  
· 금 액: 50,000,000원  
· 발 행 일: 2007년 6월 28일  
· 발 행 인: 원도군수원 노화리

2007년 7월 12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사 김윤정

## 제권 판결

사 건 2007카공45

신청인 이필남

목포시 삼성동 1342-21

이해득록 기재 종사에 대하여 2007. 6. 25.  
공시회고를 하였으나, 그 공시회고에서 청탁

2007. 7. 5. 10:00까지 권리인 신고나 청구 및  
증서를 제출한 자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신청  
에 의하여 무효가 결기 판결합니다.

· 종 류: 부자기앞수표

· 번 호: 9-14879852-61

· 금 액: 40,000,000원(10매)

· 발 행 일: 2007년 6월 22일

· 발 행 인: 목포인천화물운송부지점

· 최후소지인: 김선원

2007년 7월 12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사 박은영

## 제권 판결

사 건 2007카공46

신청인 이필남

목포시 삼성동 1341-16

호텔서울사법센터 104-708

이해득록 기재 종사에 대하여 2007. 6. 25.  
공시회고를 하였으나, 그 공시회고에서 청탁

2007. 7. 5. 10:00까지 권리인 신고나 청구 및  
증서를 제출한 자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신청  
에 의하여 무효가 결기 판결합니다.

· 종 류: 부자기앞수표

· 번 호: 9-14879858-61

· 금 액: 40,000,000원

· 발 행 일: 2007년 6월 19일

· 발 행 인: 목포인천화물운송부지점

· 최후소지인: 유경식